(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허오영숙 우03112/ 서울시 종로구 종로65길 27-1 (2층)
전화 (02) 3672-8988 / 전송 (02) 3672-8990 이메일 wmigrant@wmigrant.org 홈페이지 www.wmigrant.org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이주단체
발 신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 목	**이주민 긴급 재난지원을 위한 토론회**
날 짜	2020. 7. 28. (총 2매)

이주민 긴급 재난지원을 위한 토론회

코로나19로 인해 이주민의 일상의 차별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성 댓들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최소한의 방역물품인 마스크 구입에서도 차별을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은 이주민 전체가 배제되었다. 이에 따른 문제제기가 일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을 가진 이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켰다.

코로나19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위기이며 재난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을 선택적으로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차별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등록 이주민, 난민, 이주배경아동, 이주노동자 등 가장 취약한 이주민은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이주민들에게 방역물품과 긴급 재난지원을 1,747가구에 지원했다. 오늘 2020년 7월 28일 오후 3시 서울글로벌센터 402호에서 '이주민 긴급 재난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알리고 평등한 재난지원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토론회 첫 번째 발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임선영 이주인권팀장이 코로나 19 관련 지자체의 재난 긴급 소득지원 시 이주민 배제에 대한 평등권 침해 권고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활동가가 코로나19와 NGO의 긴급지원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장 신영숙, 서남권글로벌센터장 김동훈, 대구성서공단 노동조합 노동상담소장 김용철,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현미 등이 참여하여 각 이주현장의 상황을 알리고 이주민 긴급 재난지원을 위한 토론을 함께 한다.

2020년 7월 28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